

業界소식

印度에 漏電遮斷機 수출

金星計電(株)

金星計電이 우리나라 차단기 단일 거래 규모로는 가장 큰 50만대의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를 印度에 수출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同社は 25일 印度의 전기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자야社와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장기 수출 계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 해마다 반제품 상태의 차단기 10만대씩 모두 50만대를 수출키로 했다.

또한 同社は 印度 현지에서의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지원도 맡게 된다.

中國에 첫 컬러TV 合作 공장

(株)金星社

金星社가 中國과의 합작 작업을 마무리, 2월중 공장을 착공한다.

同社は 中國 측과 합작 투자에 따른 세부사항을 매듭짓고 최근 양국 정부에 합작승인 및 투자 인가 신청서를 제출, 2월중 송금 및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中國 珠海에 1,100만 달러를 투자, 컬러 TV 年 1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기로 확정하고 합작비율을金星 51%, 中國 49%로 결정했다.

通信 프로토콜 變換裝置 개발

金星電線(株)

金星電線은 美 IBM社의 통신 프로토콜인 SNA를 변환할 수 있는 SNA 콘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SNA 콘버터를 이용, IBM5550 시리즈 등 값 비싼 동기방식의 단말기 대신 저렴한 비동기 방식의 단말기나 프린터 등을 IBM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IBM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컴퓨터 事業 확장

大宇電子(株)

大宇電子는 컴퓨터 사업 분야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同社は 올해 퍼스컴을 비롯해 모니터 주변기기 등 컴퓨터 관련제품의 수출 목표를 작년 1억 8,000만 달러보다 50% 늘어난 2억 7,000만 달러로 잡았으며 내수도 48% 늘린 80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컴퓨터 사업 강화

東洋나이론(株)

東洋나이론이 컴퓨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同社は 최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한 퍼스컴 신제품 발표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 설명회에 이어 올 하반기 32비트 퍼스컴인 파워 386 모델과 랩톱 퍼스컴, 교육용 저가 퍼스컴 등을 내놓을 계획이며 '90년 퍼스컴 매출목표를 20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통체계를 도입, 曉星 전문대리점인 VAR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지원업체와 컴퓨터 숭을 대상으로 한 PAIR 특수 판매망 등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마진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情報·通信業體로의 전환 박차

東洋精密工業(株)

東洋精密工業은 종합정보통신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同社は 이를 위해 연구 개발비를 매년 매출액의 8~10% 수준을 유지, 오는 '93년 까지 모두 1,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다기능 전화기, 코드리스 폰, 키 폰 시스템, 컴퓨터와 보조 기억장치, 해상전자통신장비 등 기존 성장품목 이외에 원격 검침 시스템, 음성인식장치, 휴대용 전화기 등의 새 유망품목을 개발, 전략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연구소를 내수 및 판남 개발 부문, 해외사업 개발부문, 防産 개발부문으로 세분하면서 100여명에 불과한 연구인력을 300명으로 늘려 종합연구소로 개편하여 제품 개발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페라이트 코어 量産

寶岩産業(株)

寶岩産業은 국내 처음으로 첨단 소재인 페라이트 코어(망간아연 계열) 생산공장을 완공, 본격稼動에 들어갔다.

전자부품·소재 및 자동화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同社は 자체기술로 3년여간의 연구끝에 지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망간아연 계열의 페라이트 코어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同社は 50억원 상당을 들여 京畿道 義政府 공장에 월간 6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난 연초부터 정상가동에 나섬으로써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4핀 컬러 프린터 공급

(株)三寶컴퓨터

三寶컴퓨터는 24핀 컬러 프린터인 LQ 2550H 모델을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 프린터는 7가지 색상이 기본적으로 제공, 추가장치없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글씨체도 한글 명조체·고딕체, 한자 명조체, 영문 로마체 선스크리트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 프린터는 인쇄속도가 영문 400 CPS(초당 인쇄글자수) 한글 한자 148 CPS로 빠르며 고속 인쇄에도 선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프린터 수명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높은 프린터 헤드와 헤드 핀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VTR 1,000대 직수출

三星物産(株)

三星物産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무역회사와 신용장을 직접 개설하고 VTR 1,000대를 수출했다.

同社は 지난해 12월 헝가리의 인터라그(INTE-RAQ)社와 VTR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産業은행과 헝가리 대외무역은행이 1월 12일로 신용장을 개설했으며 이는 지난해 韓·헝가리간 換코레스 계약을 맺은 후 직교역을 위한 첫 환거래이다.

이번 직교역은 同社가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한지 8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韓·東歐圈 국가간의 직교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기기 사업 강화

三星電管(株)

三星電管은 컴퓨터 관련기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사업 확대 일환으로 그 동안 수출해 오던 모니터의 시판에 이어 컴퓨터 관련제품을 다양화, NEC의 산업용 터미널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등도 도입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同社は 컴퓨터 관련사업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 중형컴퓨터인 ACOS3300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 시리즈는 크기와 가격이 미니급이면서 대형 컴퓨터의 성능을 발휘하는 중형 컴퓨터로 통합사무자동화(OA)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기종이다.

3國 電子合作社 첫 설립

□ 三星電子(株) □

三星電子는 日本 도시바 및 GE(제너럴 일렉트릭) 서독 法人과 전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3國間 합작회사를 국내에 설립한다.

同社は 2月말까지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매듭질 방침인데 빠르면 연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국 전자업체가 합작방향을 정한 것은 各社의 비교우위를 살려 세계시장에 적극 파고 들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 합작업체는 1차로 고품위 VTR을 생산, 전량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생산품목을 첨단 위주로 다양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同社は 우선 水原공장의 VTR 라인 중 일부를 이의 생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연내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同社は 이 합작법인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으며 도시바는 마쓰시다, 소니, 히다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되고, GE는 日本보다 뒤진 상품력을 보완할 수 있어 3社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490억 들여 龜尾공장 완공

□ 三星코닝(株) □

三星코닝은 구미 신축공장을 완공, 정밀 薄板 코팅 유리 및 IC(집적회로) 패키지의 본격 생산에 착수했다. 同社は 지난해 1월 490억원을 투입, 이들 정밀 부품소재 공장 건설에 착수, 1년만에 준공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들 제품을 국산화, 양산하게 됐다.

기존 제휴사인 美國의 코닝 社 기술을 도입하고 40억원을 투입, 완공한 정밀박판유리(ITO)의 연간 생산능력은 440만장(1평방 피트)이다.

「꿈의 팩시밀리」實用化

□ (株)신도리코 □

신도리코는 지난 1월 G4기 21대를 한국전기통신공사(KTA)에 공급했다.

이 기종은 3초안에 전송이 가능하고 A4판 표준 원고 1,400장을 기억할 수 있는 20메가 비트의 하드 디스크를 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G3 팩시밀리와 연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로 보통용지에 기록할 수 있어 화질이 깨끗하며 카드 시스템으로 요금을 관리할 수도 있고 단축 다이얼로 1,080개소에 순차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첨단기능을 갖고 있다.

고급 카 스테레오 量産

□ 智元産業(株) □

智元産業은 고급 카 스테레오(ETR)의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 본격 量産에 나섰다. 카 스테레오 전문 수출업체인 同社は 3高 극복과 수용 증가에 대비 3억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방배동 자체 건물 100평내에 月産 2만 4,000대 규모의 고급 카 스테레오 설비를 갖추고 지난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同社の 고급 카 스테레오 생산능력은 忠南 합덕공장의 월산 8,000대를 포함 총 3만2,000대로 늘어 나게 됐다. 이와 함께 智元産業은 오는 91년까지 연차적으로 저가품의 카 스테레오 생산설비를 고부가 가치제품인 고급 ETR로 모두 대체, 원가 절감은 물론 원화절상 임금인상 원자재비 상승 등 3高에 대처해 나아가기로 했다.

인서트 머신 量産

□ (株)韓林電子 □

韓林電子는 자체 수요용으로 제작해온 인서트 머신을 올해부터 타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시흥 공장내에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同社は 지난 '86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서트 머신은 코넥터의 핀을 자동으로 삽입시켜 주는 기계로 1대가 14명의 작업량을 대신해 줌으로써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同社は 이 기계를 월 30대씩 생산, 국내 관련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점차 설비를 늘려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美AB社와 합작, PLC 사업 進出

現代電子産業(株)

現代電子産業은 세계적 PLC 전문업체인 美國 앨런 브래들리(AB)社와 PLC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인 現代알렌브래들리를 투자비율 50대 50, 자본금 20억원 규모로 새로 설립키로 하고 지난 1월 20일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새로 설립되는 現代알렌브래들리는 신규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同社 利川공장의 설비를 활용, 오는 4월부터 하이팩스 등 첨단기종의 PLC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PLC의 생산은 同社가 맡고 現代알렌브래들리가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수출을 맡는 방식으로 PLC 시장에 참여하며 수출의 경우는 AB社의 브랜드로, 내수는 現代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PLC 생산 합작회사 설립에 따라 그 동안 美 AB社의 대리점 형태로 PLC를 공급해온 現代重電機의 관련 사업내용은 現代알렌브래들리에 흡수된다고 한다.

住所 및 變更事項 案内

企商電子(株)

- 변경후 대표자: 山口惇
- 변경전 대표자: 安田成局

(株)三寶컴퓨터

- 변경후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피어리스빌딩 5·6층)
- 변경후 전화번호: 312-4080
- 이전부서: 기술연구소, 상품개발본부, 통신사업본부, 기술기획실

국제전자(주)

- 변경후 상호: 국제전자(주)
- 변경전 상호: (주)국제사
- 변경후 대표자: 이 상 빈
- 변경전 대표자: 한 광

(주)세모

- 변경후 상호: (주)세모
- 변경전 상호: 三友트레이딩(株)

佑進電子通信(株)

- 변경후 대표자: 조 황 영
- 변경전 대표자: 전 병 운

三星航空産業(株)

- 변경후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宋世昌
- 변경전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申熙澈

金星精密(株)

- 변경후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安致瀚
- 변경전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崔善來

